



갈릴래아 호수에서 고기잡이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mailto: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mailto: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느헤 8,2-4ㄱ.5-6.8-10

[화답송] ..... 시편 96(95), 1-2ㄱ.2ㄴ-3.7-9ㄱ.9와 10ㄱㄴ(◎ 3 참조)



(후렴) 주님, 당신 말씀 - 은 영이며 생명이시 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시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제 2 독서] ..... 1 코린 12, 12-30<또는 12,12-14.27>

[복음환호송] ..... 루카 4,1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1-4 ; 4,14-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64] 이스라엘 들으라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 파견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 연기사

- 김 춘운 요셉
- 노 의선 프란치스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전 마지 마가렛
- 이 영우, 이 태묘
- 대니 네런 (Danny Nairn)
- 이 정진 안토니오
- 이 정진 안토니오
- 이 정진 안토니오

### 생기사

- 울뜨레아 회원
- 김 가롤로 신부
- 박 티모테아 수녀
- 박 티모테아 수녀
- 김 금옥 (영육의 건강 위하여)
-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
- 김 경련 울릿다,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 진 홍섭 오도, 진 봉숙 소화 데레사,
- 진 재명 프란치스코, 진 재형 엘아이스
- 이 영애 레지나 가족
- 임 토마스 아퀴나스, 임 안젤라 부부

### 봉헌

- 김 린다
- 가족
- 가족
- 이 상홍 스테파노
- 김 유진 가족
- 전례부
- 연령회
- 김 승애 클라라

### 봉헌

- 정 리드비나
- 박 순 로사
- 박 순 로사
- 허 로사리아
- 정 희자 리드비나
- 유 희순 그레이스
- 전 마지 마가렛 가족
- 강 안드레아
- 강 안드레아
- 김 승애 클라라
- 임 아론(김경련 울릿다)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월23일	김진섭 야고보	방유진 그라시아	김은아 미카엘라	방유진 그라시아	양미숙 마리아	한창희 바로로	이지연 안젤라
1월30일	백이백 아오스딩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김영숙 카타리나	정은철, 한서희, 최예준	김진수, 최미루

● 이 정진 안토니오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 선종 : 2022. 1. 15(토) 오후 8:30
- 연도 : 2022. 1. 18(화) 오후 7시 - 각자의 장소에서
- Viewing 장소 : "Redden's" Funeral Home  
시간 : 2022. 1. 19 (수) 오후 6시

● 2022년 후보 광고 신청 (신청비 : \$200)

-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월 30일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 꾸리아 제187차 월례회의 줌 미팅 있습니다.

- 오늘, 1월 23일 오후 2시
- 줌 ID와 PW는 추후 공지합니다.

● 1월 30일에 봉헌될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받습니다.

- 올해 설 명절이 평일인 (2월1일, 화) 관계로 앞당겨 주일에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2021년 매일 신·구약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들은

일기표를 1월말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 - 19 '오미크론'의 확산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 특징이라니 더욱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워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1월 10일부터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11:30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동희(헬레나)  |
| 김용기(요셉)        | 지군자(스테파니) |
| 정창동(폴리나)       | 진정은(마리아)  |
| 고종호(마태오)       | 이진자(세실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

[2022년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 받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1-4 ; 4,14-21)

루카가 전하는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머리말',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가시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회당 전례의 하나로서 책을 읽기 위하여 화중 앞에 서시고,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쳐 다음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곧 이어 회중을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8항이 다음과 같이 요약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죽은 문자로 머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느헤미야서는 '울법을 봉독하다' 이야기입니다. 에즈라가 나무 단위에 서서 울법서를 펴고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며 회중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읽어 준 것을 알아 들을 수 있었고, '아멘 아멘'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전례적 집회에서 울법의 책을 이같이 읽을 때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 코린토 1서는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이야기입니다. 바오러는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을 말하면서 그 서열을 가려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사도 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말씀의 봉사'가 최고 우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글로 된 무언가의 말이 아닌, 사람이 되어 살아 계신 '말씀 (성 베르나르다의 성자 강론중에서)을 우리는 믿고 살고 주고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문자로 표기된 울법이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었다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 "사랑 받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은 열두제자 외에도 많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도 열두 제자 못지 않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누구 인가를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백인 대장을 손꼽고 싶습니다. 마태오 복음 8장 6절을 보면 백인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종을 위해 주님께 간청합니다.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절에 종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란 것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또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 8,8) 자신을 한껏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 심을 드러내는 이 짝막한 몇 마디에 주님은 깊은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마태 8, 10)

하느님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 답을 백인대장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 기도로 하느님과 자주 만나시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앙인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재 유머입니다.

여름이 되자 베드로 사도는 삼계탕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의원을 불러 논의하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천당의 닭을 다 처분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주님을 배신한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아서, 천당의 닭이 울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생긴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닭은 원래 새벽에 우는 계승관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삼계탕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모두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 만들 계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당에서는 모든 일이 합의에 의해 실행이 되니, 너희들이 합의를 본 후 내게 알려주거라" 하시고는 슬그머니 빠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닭들은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이 천당에 오면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